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 정남진장흥물축제 30일 개막

8월 7일까지 9일간 탐진강·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서 살수대첩 퍼레이드·워터락 풀파티 등 참여형 축제로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3년만에 막을 올린다.

올해 물축제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장흥,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란 주제로 펼쳐진다.

30일 개막식에서는 편백숲 우드랜드, 정남진장흥도요시장, 천관산, 제암산, 탐진강 등 아름다운 장흥의 매력을 영상으로 선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2년간 관광객들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다시 물축제를 맞이하는 '시작의 불, 마중물'의 모습을 주제 공연으로 담았다.

홍진영, 육(스우파), 호미들&릴김치 등으로 구성된 축하 공연단은 축제 첫날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30일 오후 1시에 시작되는 살수대첩 거리퍼

레이드는 공예태후 호위행렬을 재현한 역사 테마 퍼레이드로 연출된다. 퍼레이드 곳곳에서는 호위행렬을 가로막는 '무신들의 함성'을 물총으로 터트리고, 동시에 행렬 앞에서는 무신과 싸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퍼레이드 행렬이 지나는 거리 곳곳은 관람객과 물싸움이 벌어지며, 시원한 물줄기와 물폭탄이 쏟아질 예정이다.

지상최대 물싸움장은 전문 DJ들이 출연해 신나고 흥이 넘치는 무대를 마련한다. 이곳에서는 매일 오후 2시 무대를 기준으로 남측과 북측으로 나누고 박진감 넘치는 물싸움을 진행한다.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은 지상 최대의 워터볼 물풍선, 물폭탄 싸움으로 색다른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

예약료 상류 수상에서는 수상 워터 썰린지

를 운영한다. 대형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수상 워터파크를 구성하고, 참가자들이 물 위를 뛰 어다니며 장애물 통과에 도전한다.

관광객 참여 이벤트도 준비됐다. 오전 11시 물싸움장에서는 경품을 내건 페달보트 빨리달리기와 물풍선을 받아라 이벤트가 진행된다.

물축제의 핵심 야간 프로그램으로 젊은이와 외국인 사이에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워터락 풀파티는 더욱 화려해 졌다.

7월 30일과 31일 워터락풀파티는 DJ G-Park(박명수), DJ 주주, DJ 수라, DJ 차니가 뜨거운 여름밤 속으로 안내한다. 8월 5일과 6일은 DJ 김성수(췌), DJ 허조고, DJ 바비, DJ 이하늘(DJ DOC), 카주소타임, DJ 바비가 출연을 앞두고 있다. 풀파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친환경 성분으로 만든 거품을 10m 거리까지 발사해 참가자들의 흥을 돋운다.

축제장 중간에는 특별하게 물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루프탑'을 운영한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는 루프탑은 1원권 패키지를 구매해 칸막이가 설치된



독립공간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수중줄다리기, 수상자전거, 카누, 상설 물놀이장, 워터 문 카라반 캠프존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3년 만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올 여름 많은 분들이 물축제를 통해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MTB동호회, 휴전선 랠리로 강진 홍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철원군까지 300km 달리며 갈대축제 알려

강진MTB동호회(회장 김동섭)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휴전선 일원을 라이딩하며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강진 축제와 관광지를 홍보했다.

이번 랠리를 위해 동호회 회원 30여 명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백두대간 진부령고개를 넘어 양양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등 300km를 달렸다. 회원들은 등에 제7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홍보지를 붙이고 라이딩 했다.

또 북한의 임남댐의 무단 방류를 대비해 국민들이 성금으로 조성한 평화의 댐과 50년 이상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민통선 내

두터연을 답사하며 남북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다.

강진MTB 동호회는 200년 창설 후 13년째 친환경 산악자전거를 타고 매년 관외로 나가 강진군을 홍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화천군에서 산청정육점을 운영하는 정유선씨는 “동호회원들의 등 뒤에 부착된 강진군 홍보물을 보고 강진군이라는 곳을 알았다”며 “올 가을에는 강진만갈대축제를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섭 회장은 “전국에 강진을 알리고 강진의 많은 관광지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하자”고 덧붙였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도서지역 못자리 실패 농가에 예비모 지원

조도면 가사도 3개 농가에 예비모 600장 공급

진도군이 이상 기온과 가뭄 등으로 못자리에 실패해 모내기를 못한 도서지역 3개 농가에 적기 영농을 위해 예비모 600장을 공급했다.

조도면 가사도는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가 부족해 모의 웃자람과 노화모 등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못자리 초기인 4월 초순과 하순에 저온과 일교차가 큰 날씨가 반복됐고, 못자리 노화모 등의 병해와 가뭄의 피해로 모내기 시기를 놓친 농가가 발생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확보한 벼 포트육묘 600장을 1톤 트럭 4대에 나눠 싣고, 차

도선을 통해 가사도로 운반해 농가에서 모내기를 완료했다.

군은 가뭄으로 시기를 놓쳐 모내기를 못한 도서지역 농가들에게 한 해 농업의 기본인 벼농사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예비모를 지원했다.

예비모를 공급받은 농업인들은 “올해 가뭄으로 모내기 시기를 놓쳐 벼를 심지 못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비모를 공급해 줘서 벼를 심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매년 가뭄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예비 못자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책임지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의 매력 노래에 담았다” CM송 3곡 제작

해남군이 군정 정책과 관광지, 특산물 홍보의 내용을 담은 CM송 3곡을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남군 홍보삼SON은 해남형 ESG실천을 위한 해남 ESG송을 비롯해 해남군 주요관광지를 알리는 해남어때송, 해남배추의 우수성을 담은 해남배추송으로 이뤄져 있다.

해남 ESG송은 해남군에서 민선8기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남형 ESG 실천에 참여자는 내용을 발랄한 멜로디에 담았다. 누구나 한번만 들어도 쉽게 따라 부를수 있는 반복적인 가

사가 매력적인 후크송이다.

해남어때송은 여행플랫폼으로 유명한 앱의 광고를 패러디해 만들었다. 해남 관광지 곳곳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해남배추송은 트로트 장르로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보면 더욱 즐겁다. 해남배추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목튀는 가사와 영상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해남삼송은 해남군 홈페이지(https://www.haenam.go.kr 열린군정)군정자료실)와 블로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군에서도 분야별 CM송을 행정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지정하고, 각종 축제, 행사, 공연, 농산물 관측행사 등에도 널리 활용해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련 영상도 제작해 해남군 유튜브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